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뮤지컬 그룹 '파인트리'가 오는 3월 선보일 창단공연 뮤지컬 '댄싱퀸' 준비에 한창이다.

<파인트리 제공>



600년 지방 관학 전통 광주향교 '光州郷校誌' 발간

광주향교는 창건 이후 600년이 넘도록 지방 관학으로서 강학의 전통을 이어왔다. 또한 공자와 동국 심팔현 등 선현에 대한 춘추 석전과 삭망 분향의 예를 올렸다.

이번에 광주향교는 제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光州郷校誌' (상하 2권·에코미디어·사진)를 발간했다. 지난 1952년 초간본을 간행하고 1987년 2간을 간행한 이후 3번째 결과물이다.

책에는 향교의 역사와 사문들이 준수하고 따라야 할 의례와 규정을 비롯해 행사 관련 화보도 게재되어 있어 그동안의 활동상을 가늠할 수 있다.

제1편은 '역사편'으로 광주향교의 설립과 운영 등을 볼 수 있다. 제2편 '유교편'은 성균관과 향교의 연혁을 담았으며 월봉서원을 비롯한 광주의 서원과 사우에 관한 자료 등이 실려 있다. 제3편 '교육편'은 광주유학대학교와 충효교실 관련 자료들이, 제4편 '의례편'에는 석전대제, 삭망분향례, 전통혼례, 성년의 날 행사가 소개돼 있다. 제5편 '유산편'과 제6편 '단체편'은 각각 문서를 비롯해 향교 중수기, 광주시향교 재단과 광주향교교성회 등의 자료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편 '자료편'에는 광주향교 재산목록, 헌성록 등이 수록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뮤지컬 ‘댄싱퀸’ 편하고 재미있게 즐기세요”

뮤지컬그룹 '파인트리' 창단 “공연예술계 활성화 목표” 청년 예술가 18명 참여... 첫 공연 3월5일 광주교육대

3번째 지수되는 코로나 19로 공연계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거리두기로 인해 관객은 줄었고, 대규모 공연은 만난 지 오래며 해외 예술가들의 무대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배우, 연주자 등 공연 관계자들의 감염으로 공연은 미뤄지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뭉쳤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파인트리(대표 조혜수·PINE TREE)는 광주에서 뮤지컬·연극 활동을 하는 20~30대 청년예술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연극배우, 연극영화과 학생을 비롯해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성인, 청소년 등 1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극단 진달래피네단원으로 활동중인 조혜수 대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연극 배우들은 대부분 교수 또는 선배들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데, 배우들이 자체

적으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또 기존의 뮤지컬, 연극 활동에서 벗어나 연기, 춤, 노래 등을 스스로 개발하고 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연을 직접 제작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체 이름인 파인트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이자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뜻하며 이름 그대로 오래도록 활동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뮤지컬 단체가 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오는 3월 선보일 창단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3월5일 오후 4시30분~7시30분 광주교육대 풍향문화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1회 정기공연 뮤지컬 '댄싱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맘마미아'를 각색해 만들었다. 작품은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엄마 도나와 살고 있는 소파가 결혼식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작품으로 신나고 흥겨운 음악이 특징이다.

조 대표는 파인트리의 첫 공연인 만큼 뮤지컬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를 골라 도전했다고 밝혔다. "첫 공연이고 연기를 전공하지 않은 단원도 있다보니 분량을 줄이는 것 외에 기존 작품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에 조금씩 변화를 줘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어요."

단원들은 배우 외에도 감독, 연출 등의 역할을 맡았다. 1인 2-3역을 하는 셈이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연습실과 풍향문화관 내에 있는 연습실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매일 연습을 진행했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주 2-3회 모인다.

무대에는 성우람·최규웅·정은지·진소연·조혜수·조진영·정성현·김재선·이진아·한은경·안지웅·김보민·김소현·정일행 등이 오른다. 정설화·심무선·박정은은 음향을, 김한솔은 조명을 맡았다.

파인트리는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관객들이 재미있게 편히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광주를 넘어 서울 등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다음 2, 3회 공연에서는 '댄싱퀸'과는 다른 장르의 작품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저희만의 색깔을 담아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편히 공연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44-130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정우 작 '백일홍'

광주·전남여성작가회 '따뜻하게 마주한 시선'

고정희·강숙자 등 34명 참여... 3월13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여성작가 그룹 '광주·전남여성작가회'는 지난 1982년 출범한 '광주여성회화협회'가 그 출발이다. 같은해 광주여성회화협회창립전을 시작으로 활동을 펼치던 회원들은 서양화 중심에서 조소, 공예 등으로 장르를 확장하고 광주 뿐 아니라 전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까지 영입하면서 외연을 확대했다.

회원들은 지금까지 37회 정기전을 개최하고 전국 여류회가 초대전, 현대미술 워크숍, 100호 대작전 등 굵직한 전시를 꾸준히 열었다.

광주·전남여성작가회(회장 김혜숙)가 이번에는 광주 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오는 3월13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예회관(관장 하경완)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그룹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전에 선정돼 여는 기획전이다.

'With : 따뜻하게 마주한 시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34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판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그룹전에는 고정희·강숙자·최강희 등 원로 작가부터 강은주·기옥란·노정숙·변경숙·선현옥·이경옥·이정주·이종숙·이혜경·임경옥·정난주·정미희·정 선·주미희·최애경 등 중견 작가들이 참여해 각각의 개성과 감성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고정희 작가의 '구름 이야기'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알록달록한 색채가 돋보이며 강숙자 작가의 '꽃잎이 바람에 날리네'는 몽환적인 분위기 속 꽃을 들고 있는 여인이 인상적이다. 또 김혜숙 작가의 '시간의 기억'은 망망대해 외딴 섬과 리듬감 넘치는 바닷풍경이 눈길을 끌며 이정주 작가의 '라일락 풍경'은 화사한 느낌을 전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혜경 작 '축복'



안진석 작 '소화'

Z세대 청년예술인들이 바라본 세상

전남대학교박물관 청년작가초대기획전 3월10일까지 대학역사관

Z세대 청년예술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전남대학교박물관은 Z세대 청년작가 초대기획전 'Zoomer'를 지난 3월 10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실에서 진행한다.

'Zoomer'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를 의미하는 용어다. 2020년 이후에는 화상 앱(Zoom)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김건 작가는 '디지털 원주민'답게 컴퓨터 그림판을 활용해 새로운 창작 기법으로 인물화를 표현한다. 우주를 주제로 한 유화 작업은 젊은 작가로서의 내적인 고민과 외로움이 담겨 있다.

안진석 작가는 재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담담하게, 상징적으로 펼쳐낸다. 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콜라주와 영상 작업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치유해나가는 모습과 맞닿아 있다. 문의 062-530-358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사학파의 학문과 사상'

전남대, 25일 온라인 학술대회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노사 가정진과 관련된 학문과 사상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센터장 양순자)는 한국 철학사연구회(회장 이천승)·노사학파연구원(원장 박학래)과 함께 '노사학파의 학문과 사상: 직전, 재전 제자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1시부터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노사와 화서의 만남'(이항준, 전남대), '노백헌 정재규의 독서법 유형과 그 지향'(김성희, 경성대), '이곡 하인수를 통해 본 남명학 권역 노사학의 영향', '남과 오계수의 성리설과 실천적 의리정신'(조우진, 전남대), '성리학의 재현은 지속가능한 것인가'(서영이, 전남대)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는 근대초남유학연구단을 통해 노사학의 정수를 모색한 '노사 가정진의 철학사상' 등 노사학에 대한 총체적 관심으로 한국유학의 한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사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21일, 문화예술정책 간담회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공동주최하는 '20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문화예술정책 간담회'가 21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협동조합 찰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개최된다.

1부에서는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씨가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확대와 지역 문화분권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최민석(예술고등학교 학생연대)의 '예술인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중인 예술인, 권리의 주체가 되다', 김소진(시각예술단체 1995Hz)의 '청년예술지원정책 현황과 논점', 박주영(문화예술단체 영택스)의 '예술계의 자생을 돕는 지역정책 여건을 말한다', 강상수(재즈밴드 스키아브릿지)의 '창작과 다양성, 정부정책과 문화예술계가 주목할 두 기둥에 대한 제안', 공진희(조선대 공연예술과 강사)의 '예술계 입시, 임용과정의 불공정' 등 현장 이야기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5개 정당의 정책 관계자들이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3부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토론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문의 010-4520-730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